

[목회자 모임] 다 떠나감

2019. 8. 23. 이현래 목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다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여자들은 달아나지 않았고, 달아날 필요도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달아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깊이 생각해 보니 달아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싫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제한이 싫기 때문에 달아난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왜 사탄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가?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제한이 걸려있다.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만 유독 이 제한을 거부하고 나간 것이다. 더위가 있으면 찬 것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제한이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사람도 지을 때 이미 제한을 두었다.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형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다. 이 제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다. 그래서 극도의 제한 속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누구든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 그렇지 않고 싶지 않다.

꼭 십자가라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니고, 제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분도 제한을 받는다면 인간 가운데 누가 제한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팔자가 생각난다. 자기가 생각난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두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리에 일부러 두신 것이 제한 속에 감춰둔, 숨어있는 비밀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한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비밀을 모두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역을 원한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만 달아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제한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행하신 일을 보면 초기에는 전부 이적뿐이다. 그래서 사람인지 신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의 이적을 행하셨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것만 보고 있지 참된 이적을 보지 않더라는 것이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나니까 또 없냐?,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6:26)라고 했다. 그

라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적을 행해보았자 먹고 배부른 것만 보니까 기적만 보고 온다는 것이다. 표적만 보지 이면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적이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늘 말씀할 때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을 계속 하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지금도 물론 알 수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말을 했다.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은 부활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알고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도 모르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보고 함께 있어보면 알겠구나하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다 떠나 간 것이다. 인류는 모두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표현된 것은 이틀이지만 여러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제한 안에 있어보면 자기 자신이 보인다. 그 말을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준 말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고전1:30)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를 모시고자 원했는가? 그런데 이미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을 봐야 진짜 예수를 보는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때, 이미 벌써 우리를 정해 놓으신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자리니까 우리에게 보여질 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예수를 모시고 싶어 했는가?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금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하면 뭐가 맑아지더라는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고 뭐가 좀 되는데, 금식이 끝나고 뭘 먹기 시작하면 차차 원상복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를 제한하는 자리에서 내가 함께 있어보면 내 자신이 보인다. 내가 있는 자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해 놓은 자리가 보인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니깐 너무 쉽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너무 쉬운 것이다.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만하면 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것을 내가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나? 계시는 늘 발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 사람이 있다.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가? 언제든지 그 시대에 나타난 계시는 마지막이다. 다음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다.

좋은 예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처칠은 페렴에 걸렸다. 당시로서는 페렴에는 약이 없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개발되었다. 임상실험도 아직 마치지 못한 약이었다. 평상시 같으면 쓸 수 없는 약이었다. 그런데 처칠이 죽게 되니까 페니실린을 썼던 것이다. 이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런데 처칠이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한 시대를 완전히 석권했다고 할까 항생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다.

만일 다음에 더 좋은 약이 나올 수 있는데..., 하고 먹지 않았다면 처칠은 죽어야 한다. 만일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약을 쓰지 않았다면 그 의사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 약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시대로서는 그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계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함께 죽고.’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함께 죽고가 나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창세기를 말씀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했다. “**너의 고향(본토)과 친척과 아버지(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지시 할) 땅으로 가라.**”(창12:1)고 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자손을 주고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도 늙고 이를 수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창15:4)고 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15:6)라고 한다. 알고 보면 그것도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라와 의논을 해서 하갈을 데려왔다. 그래서 애기를 낳았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사라가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을 하고 말았다. 또 달라졌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스마엘을 낳았겠는가?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낳은 것이다. 그래서 사라는 갑자기 일어나서 저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내년 이맘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 양피를 베고 할례를 다 행하고 아들을 얻었

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나도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고 서야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양피를 베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을 사람이 되었다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양피를 베나 안 베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양피를 베는 것은 나는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선포이다.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많은 학살을 당했다. 표시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삭은 양피를 베어 낳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전혀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는 하나의 노선이다. 전혀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아들이다.

이것이 또 연결된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삭은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은 일이 없다. 연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만일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둡지 않고 제정신이었다면 야곱을 축복하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이 눈멀고 늙어야 될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보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구나 하고 축복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함께 하는 노선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완전히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완전히 빈 사람으로서 어디로 가는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바로 앞에 서서 겁 없이 축복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축복할 수 없는 자리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노선이 전부 다 특별한 노선이다. 일반적인 것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별도로 나온 노선이다. 모세가 그렇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섯 여자가 다 그렇다.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노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진 노선으로 왔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 했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 할 길이 없다.

어떻게 확인 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겠는가? 예수 안에 와서 비로소 그 하늘로부터 온 길, 하늘에

속한 길, 그 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고 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4:5,6)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속을 받을 길이 없다. 돌로 떡을 만드신 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국 십자가에 가서 이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말대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위치를 이탈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말은 결국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우리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면 예수와 관계되지 않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많지만 자격 있는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와 거기서 비로소 만나지게 된다.

나는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도 내가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라는 말도 내가 모르겠더라. 오직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예수와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가? 통곡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구속을 받고 보니까 이분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히 구속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알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와 나는 이제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으로 알아지게 되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세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노선이다. 이 노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제한이지만 이 제한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만날 길이 없고 그 제한 안에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나를 잃어버리고 만다. 나를 찾을 길이 없다. 어디가도 나를 찾을 데가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나 무니 해서 관념으로 돌아가 버렸다. 유교에서는 공수래공수거로 끝나고 말았고, 아니면 선도처럼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찾겠는가?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를 바로 만나겠는가? 나는 이것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한다. 또 다음에 다른 복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마지막 복음이다. 지금 나온 마지막 복음을 놔두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이 죽는데 페니실린을 안 쓰겠는가? 뻔히 알아도 써야 된다. 과학자들은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개발된 것을 보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알았을 것이다. 그래도 약을 써야 된다. 우리가 뭘 안다고 다음에 또 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겠는가? 또 나온다면 문제가 발견될 때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든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지 눈높이를 전혀 떠나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계시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기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마지막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싶다. 마지막 복음이다. 내 시대에는 마지막 복음이다. 세상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고, 누가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로서는 마지막 복음이다. 다음 복음이 있으면 그때 또 내가 이야기하겠다.

마지막 복음이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다.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